

여성 탈북민 의사소통 역량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 동기강화상담과 사회기술훈련을 중심으로*

신성만¹⁾ 원재순²⁾ 오성은³⁾ 백진주⁴⁾ 이다인⁵⁾ 김윤희^{1)†}

¹⁾한동대학교 ²⁾대구교육대학교 ³⁾미시간 주립대학교 ⁴⁾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⁵⁾(주)다인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탈북민의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남한사회 적응을 도모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창대 등(2022)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동기강화상담과 사회기술훈련 이론을 적용하여 의사소통 인식, 의사소통 태도, 의사소통 지식, 의사소통 기술의 4가지 모듈형으로 개발하였다. 인식 모듈의 목적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고, 태도 모듈의 목적은 남한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개방적 태도와 의사소통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식 모듈의 목적은 남한사회의 언어, 생활방식, 의사소통 차이 등을 이해하는 것이고, 기술 모듈의 목적은 남한 생활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여성 탈북민 10명에게 이틀에 걸쳐 회기 당 50분, 16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의사소통 지식, 기술, 인식이 증가하였고, 대인관계 능력 척도의 하위요인 중 상호작용관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의 소감에서 자신감 상승, 변화의 필요성 인지, 의사소통 문화 차이 이해, 타인 공감, 새로운 내용의 습득, 의사소통 습관 파악에서 긍정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탈북민 집단상담 실체에 대한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여성 탈북민, 의사소통 역량, 동기강화상담, 사회기술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 본 연구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성인여성 탈북민을 위한 대인관계 소통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2023년 한국여성심리학회 학술연구공모전의 우수상에 선정되어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 김윤희,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느헤미야홀 324호, E-mail: lemmontree@handong.edu

 Copyright © 2024,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2023년 기준, 국내 정착한 탈북민의 수는 약 3만 4천 명으로 나타났다(통일부, 2023). 이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은 미래 통일사회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화순, 최대석, 2011). 이에 정부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 왔다(통일부, 2023).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노력으로는 2012년부터 시행된 탈북민 시설(하나원) 확충, 심리안정 및 건강 회복 지원, 취업 지원 등이 있다(통일부, 2023).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은 경제적 어려움, 일상생활 변화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여전히 남한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강동완, 2020).

탈북민 중 70% 이상의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탈북민은 남한사회에 정착하기까지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 탈북민은 남성 탈북민과 달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제3국에서 오랫동안 불법체류 상태로 있다가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존에 대한 위협, 인권 유린과 성 착취 등 다양한 외상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류진아, 오은경, 2021; 최현실, 2011). 이들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남한에 입국하지만, 기피 업종 혹은 비정규직에 국한된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현실에 좌절감을 경험하고, 낯선 남한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다(통일부, 2022a). 특히, 남한에 동반 입국한 자녀가 있는 여성 탈북민의 경우, 남한사회에 대한 적

응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의 부담까지 겪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홍승아, 2013). 또한, 여성 탈북민은 직장에서 남한 여성이 경험하는 직장 내 차별 및 성적 괴롭힘과 함께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이중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이수연, 2022). 이처럼 여성 탈북민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은 많은 연구에서 남한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류진아, 오은경, 2021; 성정현, 2014; 최현실, 2011). 여성 탈북민이 남한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외상보다 여성 탈북민에게 더 크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조은주 외, 2018).

여성 탈북민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는 상당 부분 이들이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와 연관이 있다(김보람 외, 2022; 이유경, 김성수, 2015). 의사소통이란 말하기, 듣기, 공통의 세 가지 능력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김대회, 강경숙, 2012), 말하기 능력은 유창성,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 자기표현, 발음, 논리성이 있고, 듣기 능력에는 사실적 듣기, 추상적 듣기, 비판적 듣기, 공감적 듣기가 있으며, 공통 능력에는 대화 맥락, 사회적 관계, 태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탈북민이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 탈북민의 강한 발음과 억양, 생소한 어휘와 같은 남한 언어 차이(정성훈, 2017)는 남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의사소통 갈등이나 단절을 초래하기도 한다(김향숙, 2021). 구체적으로, 여성 탈북민은 북한식의 강한 어투와 억양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며 남한의 부드럽고 차분한 말투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으

로 받아들여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이유경, 김성수, 2015). 또한, 여성 탈북민은 남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신조어, 외래어, 관용표현이 나올 때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대화에 참여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김석향, 2005). 남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간접적인 감정표현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 탈북민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 상호 간의 비판이 비교적 자유롭고, 직접적인 감정표현으로 인해 갈등 유발 가능성이 높다(김보람 외, 2022). 이러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경험은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등 여성 탈북민의 심리·사회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강숙정, 이장호, 2009; 손영미 외, 2014).

특히, 여성 탈북민은 탈북 및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지속적인 외상 경험과 부정적 정서에 노출되어 대인관계에서 방어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강숙정 외, 2016). 구체적으로, 여성 탈북민은 남성 탈북민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신체화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 대인관계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희경, 신현균, 2010), 타인에 대한 높은 경계심과 불신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크고 작은 사건에 휘말리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숙정 외, 2016). 또한, 여성 탈북민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차별을 받더라도 남한사회에서 버텨야겠다는 생각으로 감정을 억압하는 등 감정표현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김기창, 2015; 문은희, 윤영, 2021). MMPI 검사 결과, 이들은 남성 탈북민보다 반사회성, 편집증, 강박증, 내향성 등의 척도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숙정, 이장호, 2009). 마지막으로, 여성 탈북민은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

로 차별당할 것을 우려하여 출신지를 밝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문은희, 윤영, 2021). 또한, 여성 탈북민은 남성 탈북민과 다르게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강제 결혼 등으로 인한 기혼 이력이 남한 사람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까 염려하기도 한다(김기창, 2015). 이처럼 여성 탈북민은 탈북 과정과 남한사회 정착 과정에서 이들만의 고유한 심리·사회적 성향이 형성되고 이는 남한사회 적응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강동완, 2020). 따라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대인관계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여성 탈북민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전제는 탈북민이 남한의 언어나 문화에 동화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문화 적응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김민정, 신성만, 2010; 문은희, 윤영, 2021). 즉, 여성 탈북민이 남한의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이유가 차별과 낙인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동기보다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적극적 동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문은희, 윤영, 2021).

이와 같은 입장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을 명명한 학자로 Fantini(2007)가 있다. Fantini(2007)는 개인이 자신과 다른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CC)으로 정의하고, ICC의 필요 요소로 태도, 지식, 기술, 인식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사소통 태도는 새로운 문화 또는 타문화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유연성과 호기심을 발휘하는 역량이다. 둘째, 의사소통 지식은 다양한 문화

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는 능력으로, 타문화의 역사와 가치, 개인적·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규칙, 생활양식 등 타문화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가져야 할 필수적인 정보를 뜻한다. 셋째, 의사소통 기술은 타문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행동으로, 갈등과 오해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넷째, 의사소통 인식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 타인과의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을 갖춘 사람은 자신과 다른 행동 방식을 지닌 사람과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김민정, 신성만, 2010).

하나원에서는 여성 탈북민의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자기 이해, 부모 교육,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함께 의사소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교육에 배정된 시간은 다른 교육 시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황서목, 원효현, 2017). 또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강의식 교육보다 교육생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방식의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인, 2003). 그리고, 여성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언어교육을 이수할 당시에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나서야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 차이를 경험하기 때문에(문은희, 윤영, 2021), 여성 탈북민이 남한 생활 적응 과정과 일상생활

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여성 탈북민의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개입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단은 외부 세계의 축소판으로(Yalom & Leszcz, 2005), 안전한 환경에서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 역량을 높일 수 있다(정성란 외, 2019). 또한, 공감적이고 긍정적인 집단의 분위기는 여성 탈북민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집단 안팎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며,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김보람 외, 2022).

여성 탈북민이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이를 개입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성 탈북민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주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최근 5년간 탈북민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의 수 또한 감소하여 의사소통을 다루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희 외, 2023). 하나원에서도 여성 탈북민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어려움에 주목하여 남한사회 적응에 요구되는 대인관계 소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통일부, 2022b).

이에 본 연구는 여성 탈북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 탈북민이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반영하고, 이들에게 남한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남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동기를 강화하

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탈북민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탈북민의 부정 정서 대처(김승현, 최빛내, 2013; 최현옥, 손정락, 2011), 건강한 자아형성(김정규 외, 2014; 강숙정 외, 2016), 남한 문화 적응력 향상(김희경, 2017; 한성열 외, 2007) 등 다양한 주제로 개발되었다. 강숙정 등(2016)이 개발한 하나원 셀프파워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원 여성 탈북민을 대상으로 인간관계 관점 전환과 강점 발견, 공감 대화, 자기 개방과 같은 의사소통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결과, 여성 탈북민의 지각된 의사소통 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태용(2008)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서는 의사소통 기술과 관계 지지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시행 후 여성 탈북민의 대인관계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 대처 능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을 남성 탈북민에게 5주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기개념, 정서적 안정, 대인관계 능력이 유의한 수준에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규 외, 2014). 최정은(2012)은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과 타인의 모습, 감정 인식을 다루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이를 탈북 아동에게 시행한 결과,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이처럼,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탈북민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하여 남한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여성 탈북민 의사소통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은 부정 정서 대처, 긍정적 자기상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김윤희 외, 2023),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은 프로그램의 일부 회기에서 부차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이를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프로그램 회기 내에서 다루는 의사소통 관련 내용도 인식과 기술 향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강숙정 외, 2016; 최정은, 2012), 여성 탈북민이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 태도와 지식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소통 역량을 향상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탈북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인식, 태도, 지식, 기술로 개념화하고, 이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실제 남한 생활과 연관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여성 탈북민은 하나원 교육 외에도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예절 교육과 같이 남한사회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의사소통 역량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서목, 원효현, 2017). 이들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은 언어 자체라기보다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여성 탈북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맥락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이유경, 김성수,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탈북민과 실무자와의 요구조사를 통해 여성 탈북민이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 내

용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실생활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회기 수나 운영 기간이 다소 긴 편이다(김윤희 외, 2023). 기존 탈북민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집단 회기 수는 10-15회기 미만, 프로그램 실시 기간은 1-2개월 미만, 회기 당 운영 시간은 90-120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희 외, 2023). 입국 초기 탈북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원 재원 기간(12주)과 거주지 적응 교육 기간(3주)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역에서 정착 중인 탈북민의 경우, 가정과 직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단기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노경란, 전연숙, 2009; 황서목, 원효현, 2017). 즉, 여성 탈북민에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윤희 외, 2023). 이에 본 연구는 집단 참여자의 필요와 여건에 맞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모듈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이아름, 2018).

넷째, 프로그램의 적용 이론을 확인하기 어려운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희 외, 2023).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이론의 적용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높이고, 잠재적 오류 가능성을 예방하기 때문에(김창대 외, 2022), 여성 탈북민이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이론 기반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김윤희 외, 2023). 김정규 등(2014)은 계슈탈트 이론을 기반으로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이는 남성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상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프로

그램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원 실무자는 상담심리 전공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임상심리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김주찬, 2016), 원활한 진행을 고려하여 다학제적인 이론의 적용과 직관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 교육, 임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효과가 입증된 동기강화상담과 사회적응이 필요한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기술훈련을 기반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Herman et al., 2014; Laugeson, 2021).

동기강화상담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은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위해 변화에 대한 양가 감정을 탐색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내담자의 변화 동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접근이다(Miller & Rollnick, 2015). MI의 치료 원리로는 내담자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존중하는 태도로 경청하는 공감 표현하기, 내담자의 저항에 맞서지 않고 저항과 함께 구르기, 내담자의 현재 행동과 가치관 사이에 불일치감 만들기, 변화에 대해 내담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는 자기효능감 지지하기가 있다(Miller & Rollnick, 2015).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MI는 관계 형성하기, 초점 맞추기, 유발하기, 계획하기의 네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MI는 각 단계에서 열린 질문하기, 인정하기, 반영하기, 요약하기, 정보 교환하기와 같은 MI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변화 동기를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

MI 집단상담은 다양한 집단의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MI를 훈련받은 학부모는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 수용, 관계 기술, 자기 반영, 관계 회복을 보고하였다(서난희, 김희정, 2018). 동기강화상담과 관계중심치료(Interspersonal Psychotherapy: IPT)를 결합한 집단상담은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중 처음 관계 맺기와 대인 갈등 다루기 수준을 유의미하게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요한, 2018).

MI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성 탈북민의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여성 탈북민은 새롭게 적응해야만 하는 남한사회에서 주류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는 동시에 갈등과 차별 경험으로 인해 남한 사람과의 교류를 피하려고 하는 양가감정을 경험한다(조영아 외, 2009). MI는 이러한 양가감정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남한 사람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돕는 접근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MI는 OARS(Open-ended question, Affirming, Reflection, Summarizing)로 축약되는 의사소통 기술뿐만 아니라 MI의 정신과 원리 같은 의사소통 인식과 태도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의사소통 이론과 차별점이 있다(서난희, 김희정, 2018; N'zi et al., 2017). 대인관계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대인관계 태도가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이수화, 2020), 여성 탈북민이 MI 정신을 기반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남한 사람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여성 탈북민이 남한사회에 적응적 주체가 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남한 사람과 많이 접촉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므로(문은희, 윤영, 2021; 이도희, 박희정, 2020), 여성 탈북민 스스로 남한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가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 탈북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고, 의사소통 역량의 변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동기강화상담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사회기술훈련

사회기술훈련(Social Skills Training: SST)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적절히 기능하고, 체계적으로 행동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이다(Liberman & Corrigan, 1992). SST에서 개인은 강화, 피드백과 같은 학습의 원리를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고 본다(진석균, 1995). 특히, 집단 형식으로 SST를 진행할 경우, 지도자는 여러 집단원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어서 효율적이며,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하여 집단원의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Bellack et al., 2001).

SST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상자의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인지 행동적 접근을 결합한 SST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들의 사회 기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염승희 외, 2010). 그리고, SST는 노인의 고립감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개입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

다(Fakoya et al., 2020).

SST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성 탈북민의 의사소통 역량 향상과 남한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SST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실제 대인관계 상황을 가정하여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수용적인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augeson, 2021). 이러한 장점은 여성 탈북민이 남한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집단에서 직접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대처전략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탈북민 상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담자와 탈북민 간의 문화적 차이인데(김윤정, 양은주, 2020), 상담자는 SST의 집단원 간 관찰학습과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문화적 동질감을 느끼는 장을 제공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셋째, SST는 대처자원이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여성 탈북민에게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최윤경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술훈련의 원리를 적용하여 여성 탈북민이 남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화 차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김창대 등(2022)이 제안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해당 모형은 다수의 프

로그램 개발 모형의 장점을 통합한 모형으로, 각 단계는 순환적으로 진행되며, 연구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탈북민 의사소통 역량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 실행, 책무성 확보의 4단계 절차로 개발하였다.

기획 단계

기획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결정하고, 요구조사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비전과 목적을 설정한다(김창대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 대상으로 운영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헌 고찰 결과, 여성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긍정 정서 및 강점을 유발하고(김승현, 최빛내, 2013; 최영미 외, 2010), 실제적 행동 변화로 이어지며(조영아, 2009), 탈북민의 요구를 반영한 모듈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김윤희 외, 2023).

또한, 여성 탈북민이 경험하는 의사소통 어려움과 의사소통 역량 증진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여성 탈북민 8명과 탈북민 상담 실무자 6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여성 탈북민은 의사소통에서 자기 인식의 어려움, 남한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 직설적이고 부정적인 언어 사용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 탈북민의 관계 형성 동기 향상, 의사소통 지식에 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매체 활용, 경청, 공감, 자기표현 훈련, 자기 인식 증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적 측면에서는 탈북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참여형 교육방식의 필요성을 구체화하였다. 이상의 FGI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듈별 프로그램 목적과 회기 목표를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설계 단계

설계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론적 검토와 프로그램 활동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각 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활동, 내용, 전략을 선택한다(김창대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개입 이론인 동기강화상담과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선별하였다(이하림, 신성만, 2016; 조요한, 2018; Bellack et al., 2001; Laugeson, 2021). 다음으로, 프로그램 대상이 여성 탈북민임을 고려하여 중년여성 집단프로그램 연구에서 활용된 활동을 참고하였고(이선희, 권현용, 2013; 김경심, 2010),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FGI 결과에 따라, 다문화 가족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에서 활용된 활동을 참고하여 선별하였다(고홍월 외, 2010; 남순연, 2014). 또한, 기존의 하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나원 의사소통 프로그램도 참고하였고(강숙정 외, 2016; 김정규 외, 2014), 연구진 내부 회의를 거쳐 모듈별 목적에 가장 적합한 활동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초안에서 선택된 활동과 운영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대학생 5명을 편의표집하여 프로그램 시연을 진행하였다. 연구진 내 상담심리 분야에서 수련감독자 자격을 갖추고, 탈북민을 대상으로 다년간 개인 및 집단

표 1. FGI 결과에 따른 회기별 목표 도출

모듈	목적	회기	회기 목표
태도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개방적 태도와 의사소통 동기 향상	1	과거의 의사소통 경험을 말하고, 의사소통 경험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 수용하기
		2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강점 발견하기
		3	원만한 의사소통 변화 요인을 행동 계획으로 세우 평가하기
		4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향상하기
지식	남한의 언어, 생활방식, 의사소통 차이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 습득	1	남북한 언어·문화·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알고, 남한의 문법과 의사소통 방식을 대화에 적용하기
		2	남북한 대화 예절의 차이와 남한의 대화 예절 이해하기
기술	남한 생활에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 습득	1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기
		2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적절하게 공감하기
		3	자연스럽게 대화 이어가기
		4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인식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여 비관적인 사고 함양	1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인식함으로써 자기 성찰 능력 함양하기
		2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생각 이해하기
		3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행동 이해하기
		4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감정 이해하기

상담 경험과 의사소통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 전문가 1인의 지도하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는 연구원 2명이 보조 진행하였다. 시연 후 연구진 회의를 거쳐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 방식을 수정하였다.

탈북민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경력 또는 탈북민 상담 경력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2인과 실무자 2인에게 수정한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성, 실현 가능성, 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평정을 요청하였다. 전문가 평정 결과, 5점 만점 기준으로 회기별 목표 타당성은 4.75점, 실현 가능성 4.75점, 내용의 적절성 5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프로그램 활동지 상의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기술, 여성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거나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합 의견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각 회기별 활동 요소들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조직되었다.”, “집단상담 운영 경력이 많지 않은 진행자를 고려하여 집단 매뉴얼에 활동 진행과 관련된 유의 사항을 기재한다면 좋은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실행 단계

실행 단계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김창대 외, 2022).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2022년 9월 초에서 10월 초까지 모집하였고,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개인정보 보호,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100,000원 상당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남한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거나 남한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함으로써 남한사회에 더욱 잘 적응하기를 원하는 여성 탈북민으로, D시 지역 하나센터와 P시 탈북민 교회를 통해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탈북민이 남한 언어와 문화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 5년 정도 소요된다는 기준에 따라(문은희, 윤영, 2021; 김향숙, 2021), 남한 거주 기간이 6년 미만인 여성 탈북민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하나원 수료 연도가 2012년 이전인 중·고령 탈북민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는 2012년부터 탈북민의 심리안정과 건강 회복 지원이 본격화되었고(통일부, 2023), 중·고령 탈북민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남한과 남한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대상이 적고(전우택 외, 2006), 고립감과 실존적 위기를 많이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이인수 외, 2022)에 따라 연구 대상자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여성 탈북민만으로 구성된 동질 집단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여성 탈북민 집단원이 남한 사람 집단원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인해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집단에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며, 집단원 사이의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강숙정 외, 2016).

프로그램 운영은 D시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모집된 여성 탈북민 5명과 P시 소재 탈북민 교회를 통해 모집된 여성 탈북민 5명으로, 총 10명을 5명씩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모둠 진행 순서는 여성 탈북민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집단 초기에 나누기 힘들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김승현, 최빛내, 2013), 인식 모듈은 후반부에 배치하였고, 집단원의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된 지식과 태도 모듈을 초반부에 진행하였다. 또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모듈 순서를 다르게 변경하였는데, 남한 거주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D시 집단은 남북한 언어와 의사소통 문화 차이를 다루는 지식 모듈을 우선 배치하여 지식-태도-기술-인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D시 집단에 비해 남한 사람과 의사소통 경험이 많은 P시 집단의 경우, 의사소통 변화 동기를 유발하고, 더욱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하여 태도-지식-기술-인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남한 거주 기간은 3년 미만 1명(10%), 3년 이상 5년 미만 4명(40%), 5년 이상 7년 미만 1명(10%), 10년 이상 3명(30%)으로 나타났다. 하나원 수료 기간은 5년 미만 7명(70%), 하나원 수료 10년 이상의 탈북민 3명(30%)이었고, 연령대는 30대 1명(10%), 40대 5명(50%), 50대 2명(20%), 70대 2명(20%)이고 평균 나이는 50.8세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은 무직 8명(80%), 주부 2명(20%)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최종 반영한 여성 탈북민 의사소통 역량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초에 진행하였다. D시 집단은 지역 하나센터의 협조를 구해 D시 지역 하나센터에서 진행하였고, P시 집단은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진행하였다. D시 집단의 주지도자는 연구진 내 상담심리 분야에서 수련감독자 자격을 갖추고, 다년간 지역 탈북민 대상 개인 및 집단상담 경험이 있으며 의사소통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 전문가 1인이고,

표 2.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집단운영 지역	나이	직업	남한 거주 기간	하나원 수료 연도
D시	30	무직	2년 6개월	2020
	45	무직	5년 5개월	2017
	41	무직	4년 6개월	2018
	56	주부	3년 8개월	2019
	45	무직	3년	2019
P시	58	무직	13년 3개월	2009
	43	주부	3년 4개월	2019
	43	무직	4년 7개월	2019
	76	무직	17년 7개월	2002
	71	무직	14년	2008

보조지도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는 연구원 2명이다. 그리고, P시 집단은 연구진 내 상담심리 분야에서 수련감독자 자격을 갖추고, 탈북민 대상으로 다수의 개인 및 집단상담 경험이 있으며, 탈북민 부모와 동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 상담 전문가 1인의 지도하에 연구원 2명이 진행하였다. 여성 탈북민의 주중 일정으로 인해 주말과 공휴일을 활용하여 회기당 50분, 하루 8시간씩 이틀에 걸쳐 16회기 단기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책무성 확보 단계

책무성 확보 단계는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 등을 논의하는 단계이다(김창대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표본 수가 30명 이상일 때, 표본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모수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따라

(Aron & Aron, 2002), 비모수통계 분석인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으로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모듈이 끝나는 시점에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여 해당 모듈이 남한 사람과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와 진행자의 진행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은정(2019)의 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 척도와 박선우 등(2017)의 대인관계 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양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박은정(2019)의 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 척도는 총 39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진이 탈북민의 문해력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타문화 대상자와의 대화가 불명확하고 모호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은 “남한 사람과 대화가 어렵더라도 끝까지 참고 들어줄 수 있다.”와 같이 탈북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의미가 중복되는 단어를 명료하게 수정하였다. 또한, 해당 척도는 원래 태도, 지식, 기술, 인식, 상호작용 참여, 문화 차이 존중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태도 7문항, 지식 7문항, 기술 9문항, 인식 6문항 총 2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박은정(201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2, .87, .90,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태도는 사전 .86, 사후 .66, 지식은 사전 .92, 사후 .82, 기술은 사전 .95, 사후 .77, 인식은 사전 .90, 사후 .65으로 나타났다. 박선우 등(2017)의 대인관계 능력 척도는 총 31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요인은 관계에 대한 자신감, 타인 지향, 자기표현, 상호작용관리, 신뢰감 형성의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선우 등

(201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8, .82, .60, .83, .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관계에 대한 자신감은 사전 .83, 사후 .94, 타인 지향은 사전 .64, 사후 .78, 자기표현은 사전 .78, 사후 .84, 상호작용관리는 사전 .70, 사후 .76, 신뢰감 형성은 사전 .92, 사후 .43, 전체 사전 .82, 사후 .87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질적인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감문을 분석하였다. 질문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것이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의미 있거나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이다.

최종 프로그램 구성

여성 탈북민 의사소통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은 도입 회기(1회기), 의사소통 태도(2-5회기), 의사소통 지식(6-7회기), 의사소통 기술(8-11회기), 의사소통 인식(12-15회기)의 4가지 모듈과 종결 회기(16회기)로 최종 구성하였다. 도입 회기와 종결 회기는 필수 회기로 설정하였고, 그 외의 회기는 독립적인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집단원의 필요에 따라 최소 3회기에서 최대 16회기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 탈북민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각 회기는 시작, 전개,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회기의 시작 단계에서는 집단 지도자가 집단원에게 회기 목표와 각 회기에서 진행될 활동을 안내한다. 전개 단계에

서는 집단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몸풀기 활동을 진행한 뒤 사전에 준비된 활동지로 활동을 진행한다. 마무리 단계는 집단원 간 소감을 나누고, 진행자가 회기를 요약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도입 회기(1회기)의 제목은 시작의 첫걸음이다. 본 회기에서는 전체 프로그램 구성과 의사소통의 개념, 집단 규칙을 설명하고 자기소개 시간을 가진다. 프로그램 집단원은 도입 회기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총 4회기(2-5회기)로 구성된 태도 모듈은 여성 탈북민이 자신의 의사소통 강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MI의 자기효능감 지지하기 원리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여성 탈북민이 남한 사람과의 의사소통할 때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인터뷰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본 모듈에서는 여성 탈북민의 의사소통 자신감 향상을 위해 의사소통 강점을 확인하고, 남한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웠던 점을 공유하며 격려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집단원과 함께 의사소통 시나리오를 만들고, 역할극을 통해 남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상황을 안전한 상황에서 연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총 2회기(6-7회기)로 구성된 지식 모듈은 SST의 강화와 피드백 원리를 적용하여 의사소통 지식 습득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터뷰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본 모듈에서는 OX 퀴즈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와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

졌다. 퀴즈는 남한에서 주로 사용되는 줄임말과 외래어, 북한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같은 남한 표현(예: 병을 보다, 진료를 받다), 직접 화법과 간접화법의 차이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휴대전화로 지도 찾기, 정보 검색하기, 문자 예절 등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총 4회기(8-11회기)로 구성된 기술 모듈은 열린 질문하기, 인정하기, 반영하기와 같은 MI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찾고, 기술의 구성 단계에 대해 토의하며, 역할극을 진행한 후 서로의 의사소통 기술을 피드백하여 관찰학습을 촉진하는 SST의 단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인터뷰에서 여성 탈북민이 대인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경청, 공감, 자기표현 기술과 같은 의사소통 학습 요구를 반영한 내용이다. 본 모듈의 진행을 위해 여성 탈북민 배우를 섭외하여 남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촬영하였다. 영상의 내용은 직장 동료와 안부 나누기, 자녀의 고민 경청하기,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을 때 자기표현 하기 등 남한사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집단에서는 해당 영상을 시청한 뒤, 각 회기에서 배운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하고 느낀 점을 나누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총 4회기(12-15회기)로 구성된 인식 모듈은 MI의 불일치감 만들기 원리를 적용하여 현재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과 자신이 원하는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여성 탈북민 스스로가 감정, 행동, 생각을 인식하고 관계에 대

표 3. 프로그램 최종 구성

모듈 (총 회기 수)	회기 제목	활동 내용
도입 회기 (1회기)	시작의 첫걸음	① 프로그램 및 집단 규칙 소개 ② 자기소개 관
의사소통 태도 (4회기)	천천히 돌아보는 나의 과거	① 몸풀기: 무엇이 보이나요? ② 시간여행
	자신감 가득! 나의 오늘	① 몸풀기: 절대음감 ② 나의 의사소통 강점 찾기 ③ 의사소통을 잘했을 때 나의 모습
	새롭게 기대되는 나의 미래	① 몸풀기: 말 덧붙여 나가기 ② 자신감 등반하기 ③ 의사소통 활동 계획과 평가
	변화의 첫걸음	① 의사소통 실습 ② 변화선서문
의사소통 지식 (2회기)	다른 언어, 다른 대화법	① 몸풀기: 단어 맞추기 게임 ② 도전 남한 지식왕!
	상황에 알맞은 소통 방법	① 대화 예절 관련 경험 나누기 ② 남북한 대화 예절 차이 교육 ③ 남북한 대화 예절 차이 실습
의사소통 기술 (4회기)	귀 기울이기	① 몸풀기 : 잘 듣고 그려줘! ② 경청 이해하기 ③ 경청기술 연습하기
	너의 마음이 느껴져	① 몸풀기: 공-감 주고받기 ② 반영 이해하기 ③ 반영기술 연습하기
	대화의 첫걸음	① 몸풀기: 너도? 나도! ② 대화시작기술 이해하기 ③ 대화시작기술 연습하기
	나를 보여 줄게	① 자기표현 이해하기 ② 자기표현기술 연습하기
의사소통 인식 (4회기)	인식을 위한 준비	① 몸풀기: 몸을 풀어봅시다! ② 나에 대한 인식 ③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나의 생각이 궁금해	① 몸풀기: 동문서답 ② 다양한 생각 ③ 구슬의 개수를 세어보자!
	내가 모르는 나!	① 몸풀기: 다같이 게임 ② 나도 영화배우 ③ 더하기일까 빼기일까
	나의 감정이 궁금해	① 나의 감정을 찾아라 ② 기분이 어때요
종결 회기 (1회기)	새로운 시작을 향해	① 그림과 말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프로그램

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인터뷰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본 모듈에서는 남한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나누고, 편견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단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남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또한, 집단원은 그동안 남한 사람과 의사소통했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었다.

종결 회기(16회기)에서는 지난 회기를 돌아보고 프로그램 전체를 이해하며 자신이 느끼고 변화한 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프로그램 회기에 대한 구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결 과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종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였다. Wilcoxon 부호순위 검증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총점이 2.50점 증가하였고, 태도를 제외한 지식, 기술, 인식의 총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대인관계 능력 총점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Z = -1.72, SD : 8.62, p < .10$), 특히, 대인관계 능력 척도의 하위요인 중 상호작용 관리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Z = -1.98, SD : 3.77, p < .05$). 집단 내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에 대한 자세한

표 4. 집단 내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 ($n = 10$)

	구분	사전	사후	증가량	Z
		M(SD)	M(SD)	M(SD)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총점	104.3(19.20)	106.8(12.04)	2.50(17.30)	-51
	태도	27.6(3.98)	27.3(2.75)	-.3(4.16)	-21
	지식	23.3(5.58)	23.7(4.74)	.4(5.02)	-91
	기술	33.5(8.36)	34.4(4.48)	.9(7.68)	-10
	인식	19.9(5.00)	21.4(2.95)	1.5(17.30)	-112
대인관계 능력	총점	101.10(10.40)	106.20(10.80)	5.1(8.62)	-1.72*
	관계에 대한 자신감	23.3(5.50)	24.40(6.72)	1.1(6.53)	-42
	타인지향	23.6(2.72)	23.7(2.946)	.1(6.54)	-18
	자기표현	23(3.59)	23.9(3.67)	.9(3.38)	-71
	상호작용 관리	22.5(4.81)	25.3(5.33)	2.8(3.77)	-1.98**
	신뢰감 형성	8.7(3.30)	8.90(1.97)	.2(2.15)	-32

* $p < .10$, ** $p < .05$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프로그램 회기별 만족도 결과

프로그램의 회기별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회기별 평가 질문지의 프로그램 목적 달성 여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만족도 설문 중 남한 사람과 대화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정도에 관해서는 태도, 기술, 인식 모듈의 점수가 4.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 지식은 4.78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의 전체 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4.7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자의 진행에 대한 만족도 문항에서는 태도와 기술 모듈의 점수가 모두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식 모듈은 4.89점, 인식 모듈은 4.70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의 전체 만족도 점수 평균은 4.90점으로 나타났다.

표 5. 프로그램 만족도 (5점 만점, n = 10)

질문	모듈	평균
이번 모듈이 남한 사람과 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태도	4.80
	지식	4.78
	기술	4.80
	인식	4.80
프로그램 진행자의 진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체	4.79
	태도	5.00
	지식	4.89
	기술	5.00
	인식	4.70
	전체	4.90

의사소통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소감문 답변을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자신감 상승’, ‘변화의 필요성 인지’, ‘의사소통 문화 차이 이해’, ‘타인 공감’, ‘새로운 내용의 습득’, ‘의사소통 습관 파악’의 6가지 주제로 보고하였다.

표 6.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분석 결과

주제	내용
자신감 상승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마음을 열게 되었고, 남한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됨
변화의 필요성 인지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적극적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함
의사소통 문화 차이 이해	칭찬이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의사소통에 관한 남북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음
타인 공감	다른 탈북민과 교류하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어 좋았음
새로운 내용의 습득	남한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 기술, 적절한 대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음
의사소통 습관 파악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돌아보고, 남한에서의 대화 예절을 숙지하는 것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논 의

본 연구는 여성 탈북민의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 탈북민의 의사소통 역량 향상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동기강화상담과 사회기술훈련을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론으로 적용하였고, 여성 탈북민과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남한 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역량을 도출하였으며, 여성 탈북민의 특성과 일정을 고려하여 개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듈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탈북민을 대상으로 이들에 걸쳐 실시한 후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성 탈북민은 의사소통 역량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의사소통 인식, 지식, 기술 점수에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역량 중 인식과 기술을 다룬 탈북민 의사소통 집단상담 프로그램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이다(강숙정 외, 2016; 최정은, 2012). 다만, 프로그램 참여 후 남한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수용적 태도와 관련된 태도 점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먼저, 일부 연구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자신의 부족한 의사소통 역량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소통 역량을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낮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신의 의사소통 역량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의사소통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일정과 여성 탈북민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주 1회로 기획된 프로그램을 이틀간의 단기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는데,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생활에서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후 검사 측정 시기가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의사소통 태도는 다른 역량 요인(인식, 지식, 기술)에 비해 단기간에 향상하기 어려운 요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pencer & Spencer, 1993). 또한, 의사소통 지식과 기술 모듈의 일부 회기에서는 남한의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방식이 연구 대상자의 정서적 반감을 일으켜 의사소통 태도 점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여성 탈북민을 참여자로 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남한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타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집단 내에서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본 프로그램이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하지는 못했지만, 여성 탈북민이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 역량 요소를 의사소통 태도, 지식, 기술, 인식으로 개념화하고, 이에 따른 총체적인 개입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여성 탈북민은 의사소통 역량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대인관계 능력 점수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조요한, 2018; 김정규 외, 2014). 특히,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요인 중

타인의 요청을 자신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상호작용 관리 점수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는데, 이는 기술 모듈의 활동 중 자기표현 하기와 인식 모듈의 활동들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는 대인관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알아차리고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은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전명순, 2012),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탈북민이 남한사회에서 맺는 대인관계 갈등 요인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만족도 결과,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4.79점으로 나타났으며, 모듈별 만족도는 인식, 태도, 기술 모듈의 점수가 4.80점 지식 모듈의 점수가 4.78점으로 나타났다. 진행자 만족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4.9점으로 나타났으며, 모듈별로는 태도와 기술 모듈이 5점, 지식 모듈 4.89점, 인식 모듈이 4.70점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도움 정도는 다른 모듈에 비해 지식 모듈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남한에 입국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참여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남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의사소통 지식에 관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행자 만족도는 인식 모듈이 다른 모듈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 탈북민이 집단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마주하는 활동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은 남한 사람과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와 진행 만족도를 대체로 충족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사소통 프로그램 참여 소감으로 자신감 상승, 변화의 필요성 인지, 의사소통 문화 차이 이해, 타인 공감, 새로운 내용의 습득, 의사소통 습관 파악의 6가지 주제로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신감 상승과 의사소통 태도 변화 필요성은 태도 모듈의 의사소통 강점을 찾고, 남한 사람과의 대화 계획을 세우는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식 모듈의 활동 중 의사소통 지식을 퀴즈로 배우는 도전 남한 지식왕! 활동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남북한 의사소통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집단원끼리 남한에서의 대화 예절 경험을 나누는 활동은 타인을 공감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술 모듈을 통해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반영하는 방법,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같은 새로운 내용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인식 모듈의 더하기일까 빼기일까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의사소통 습관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탈북민이 자신의 의사소통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 연구 설계의 한계가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가 필요하다(김창대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통제집단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사회 적응 중인 여성 탈북민은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아 연구 참여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 탈북민의 상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직업, 연령, 남한 정착 기간, 탈북 동기,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통제집단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좀 더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김윤희 외, 2023).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도구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역량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부재하여 남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문화 간 역량 척도와 대인관계 능력 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연구진 간의 회의를 거쳐 탈북민의 문해력에 맞게 수정하였지만, 여성 탈북민을 대상으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 탈북민 의사소통 역량 척도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더욱 타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초안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여성 탈북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 상담경력이 있는 실무자로부터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받았으나, 프로그램 시연은 남한 대학생 5명에게 실시하였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적응 중인 탈북민이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매뉴얼을 재검토하여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탈북민이 다른 여성 탈북민에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탈북민 집단상담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 개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여성 탈북민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남한 사람과 교류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 탈북민은 남한사회에 동화되어야 하는 존재로만 바라보기보다 공존하는 다문화 집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문은희, 윤영, 2021), 이들이 남한 사람과 반복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경,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남한 집단원이 함께 참여하거나 후속 연구로 남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성 탈북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동완 (2020).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과정과 정착지원 방안. *한국접경지역통일연구*, 4(2), 163-183.
- 강숙정, 김은미, 손영미 (2016). 하나원 인간관계셀프파워 프로그램이 여성탈북민의 정서, 사회적지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137-149.
- 강숙정, 이장호 (2009). 상담일반: MMPI 검사 결과를 통한 새터민의 심리상담적 접근: 가양동 새터민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2), 235-250.
- 고홍월, 황매향, 강유임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연구*, 18(2), 71-84.
- 권태용 (2008). 신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단

- 기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심 (2010).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인생태도와 부모-자녀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창 (2015).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201-225.
- 김대회, 강경숙 (2012). 고등학생 의사소통 능력 진단도구의 개발. 국어교육학연구, 45(1), 212-256.
- 김민정, 신성만 (2010).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이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11-737.
- 김보람, 오은경, 김영인, 한창균 (2022). 남북한 초기성인의 집단상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기독교와 통일, 13(2), 125-175.
- 김석향 (2005). 남북한언어 이질화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고찰: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과 새터민(탈북민)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8(2), 85-124.
- 김승현, 최빛내 (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PTSD 프로그램 효과 검증: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8(4), 533-548.
- 김윤정, 양은주 (2020). 북한이탈주민 내담자와 남한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 및 도움 되지 않은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117-145.
- 김윤희, 오성은, 채희훈, 임주희, 신성만 (2023). 탈북민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스코핑 리뷰.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3(11), 325-337.
- 김정규, 이상하, 이린아, 김정한, 신지영, 이동훈 (2014).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하나원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자아개념, 사회성, 충동성, 불안과 우울을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8(1), 89-103.
- 김정인 (200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평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찬 (2016). 탈북민 전문상담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퍼비전 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6, 33-55.
- 김창대, 김은하,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하나 (2022).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판. 학지사.
- 김향숙 (2021).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의사소통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간문화감수성 측면에서. 사회언어학, 29(3), 87-113.
- 김화순, 최대석 (2011).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 20(2), 37-73.
- 김희경 (2016).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529-562.
- 김희경 (2017).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953-984.
- 김희경, 신현균 (2010).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성 및 연령별 심리 증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707-724.
- 남순연 (2014). 다문화가족부부 의사소통 증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경란, 전연숙 (2009). 입국 초기 북한이탈주

- 민 대상 단기 진로개발교육 효과 연구 - 학습자의 진로인식 수준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8(1), 245-277.
- 류진아, 오은경 (2021).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질적탐구*, 7(1), 35-69.
- 문은희, 윤영 (2021). 중국 경유 탈북여성의 다중문식성 (multiliteracies) 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11(1), 151-189.
- 박선우, 설정희, 천성문 (2017). 대학생용 대인관계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24(4), 723-738.
- 박은정 (2019). 한국 대학생의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난희, 김희정 (2018).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동기면담 훈련 경험 탐색. *정신간호학회지*, 27(3), 252-263.
- 성정현 (2014).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5), 117-131.
- 손영미, 강숙정, 박정열 (2014). 여성 새터민의 성격유형에 따른 심리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19-44.
- 염승희, 신현균, 오수성 (2010). 사회적 기술 훈련 집단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 향상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스트레스 수준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3), 853-873.
- 이도희, 박희정 (202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3(1), 49-63.
- 이선희, 권현용 (2013). 자비명상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자존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동서정신과학*, 16(1), 121-138.
- 이수연 (2022). 북한이탈주민여성에 대한 일터 내 차별과 괴롭힘. *젠더법학*, 14(1), 121-156.
- 이수화 (2020). 대학생의 대인관계 태도가 대인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1(2), 605-632.
- 이아름 (2018). 직장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모델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3(2), 25-49.
- 이유경, 김성수 (2015).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언어적 의사소통 수행 양상.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학술대회*, 119-129.
- 이인수, 노미화, 김현아 (2022). 북한이탈노인의 힐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5(3), 225-269.
- 이하림, 신성만 (2016). 대학생 학사경고자를 위한 동기강화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1(1), 57-82.
- 전명순 (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우택, 유시은, 조영아, 홍창형, 엄진섭, 서승원 (2006).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3년간 사회의식 변화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추적연구. *신경정신의학*, 45(3), 252-268.
- 정성란, 고기홍, 김정희, 권경인, 이윤주 (2019). 집단상담. *학지사*.

- 정성훈 (2017).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에 대한 기초 연구: 각 의사소통 상황을 중심으로. *한글*, 318, 243-268.
- 조영아 (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85-310.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 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조요한 (2018). 대학생 우울감소와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강화 관계중심 심리치료(MI-IPT)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한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주, 조현미, 최은정 (2018).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사회적응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9(4), 488-498.
- 진석균 (1995).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 33-50.
- 최영미, 오수성, 이창인 (2010). 새터민을 위한 PTSD 극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예비 연구. *신경정신의학*, 49(2), 248-255.
- 최윤경, 김종남, 채정민 (2009). 로샤 검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대처와 방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4), 507-528.
- 최정은 (2012).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새터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실 (2011).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한국 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연구*, 21(1), 161-204.
- 최현옥, 손정락 (2011). 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K-MBSR)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경험회피 및 수치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6(3), 469-482.
- 통일부 (2022a).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행계획. 통일부.
- 통일부 (2022b). 제안요청서 - 『성인여성 탈북민을 위한 대인관계 소통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통일부 (2023).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
-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13(2), 33-54.
- 홍승아 (2013). 가족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제: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5(2), 173-205.
- 황서목, 원효현 (2017).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한 하나원 교육과 남한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터뷰 내용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9(4), 1277-1288.
- Aron, A., & Aron, E. N. (2002).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Prentice Hall Press.
- Bellack, A. S., Mueser, K. T., Gingerich S., & Agresta, J. (2001). *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한 사회기술훈련*. (김철권, 조진석 공역). 하나의학사(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Fakoya, O. A., McCorry, N. K., & Donnelly, M. (2020).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interventions for older adults: a scoping review of reviews. *BMC public health*, 20, 1-14.

- <https://doi.org/10.1186/s12889-020-8251-6>
Fantini, A. E. (2007). *Explor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CSD Research Paper No. 07-01)*.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https://doi.org/10.7936/K7TB16CX>
- Herman, K. C., Reinke, W. M., Frey, A., & Shepard, S. (2014).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schools: Strategies for engaging parents, teachers, and student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augeson, E. (2021). 성인을 위한 PEERS 사회 기술훈련. (유희정, 김주현 역). 시그마프레스(Original work published 2017).
- Liberman, P. R., & Corrigan, P. W. (1992). Designing new psychosocial treatments for schizophrenia. *Psychiatry*, 56(3), 238-249.
<https://doi.org/10.1080/00332747.1993.11024640>
- Miller, W. R & Rollnick, S. (2015). 동기강화상담 3판. (신성만, 권정옥, 이상훈 공역). 시그마프레스(Original work published 2012).
- N’zi, A. M., Lucash, R. E., Clionsky, L. N., & Eyber, S. M. (2017). Enhancing parent - child interaction therapy with motivational interviewing technique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24(2), 131-141.
<https://doi.org/10.1016/j.cbpra.2016.03.002>
- Spencer, L. M., & Spencer, P.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 Yalom, I., & Leszcz, M.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5th ed.)*. Basic Books.
- 1차원고접수 : 2023. 12. 27.
심사통과접수 : 2024. 03. 13.
최종원고접수 : 2024. 03. 3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 Focusing on Motivational Interviewing and Social Skills Training

Sungman Shin¹⁾ Jae Soon Won²⁾ Seongeun Oh³⁾ Jinjoo Baek⁴⁾ Dain Lee⁵⁾ Yunhee Kim¹⁾

¹⁾Handong Global University ²⁾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³⁾Michigan State University ⁴⁾Gyeongbuk Problem Gambling Agency ⁵⁾DAIN Co., Lt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group counseling program that promotes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by enhancing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verifying its effectiveness. To this end, the program was developed in four modules: communicative attitudes, communicative knowledge, communicative skills and communicative awareness by applying Motivational Interviewing and Social Skills Training according to the program development procedure proposed by Kim et al (2022). The purpose of the attitude module is to improve openness and motivation to communicate with South Koreans, and the purpose of the knowledge module is to understand the language, lifestyle, and communicative differences in South Korean society. The goal of the skills module is to learn how to communicate to build meaningful relationships in South Korean life, and the goal of the awareness module is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about relationships by understanding oneself and others. As a result of the 16 sessions of the program, 50 minutes per session, over two days, for 10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ults showed an increase in communicative knowledge, skills, and awareness,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interaction management among the sub-factors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Scale, compared to before the program. Participants also reported that the program helped them to increase their confidence, recognize the need for change, understand communication culture differences, empathize with others, learn new content, and identify communication habi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for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Communicative Competence, Motivational Interviewing, Social Skills Training, Group Counseling Programs